

1인칭 주인공 시점(여주인공인 점순이의 시점)으로 고쳐 쓴 소설

[저작권자: 2020년 송정중 2학년 학생들, 무단전재 및 배포 금지]

아래의 소설들의 저작권은 송정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온오프라인의 지면에 실을 수 없습니다.

나는 17살 점순이다. 봄도 되었는데 나도 연애가 하고 싶다. 하지만 이 동네에는 내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한명도 없다. 하지만 어느 날 점돌이라는 아이가 며칠 전에 이곳으로 왔다. 생긴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감자 3개를 빼와서 열심히 구워서 점돌이에게 주었다. 하지만 점돌이는 "난 감자 안먹는다. 너나 먹어라"라며 감자를 밀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얼굴이 새빨개지며 눈물까지 나오려는 것 같았다. 그 뒤로 나는 화가 나 우리 집에 있는 닭과 점돌이네 닭을 싸움시키고 점돌이에게 욕까지 해가며 복수를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점돌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시간에 맞춰 먼저 산에 올라가 또 닭싸움을 시키고 호드기를 붙였다. 그리고 마침 점돌이가 닭싸움을 시키고 호드기를 붙고 있는 나를 보고선 오늘은 표정이 좀 다르다, 그러곤 갑자기 막대기를 들고 우리 수탉을 한 번에 죽여 버렸다. 나는 드디어 화가 끝까지 난건가 싶어, 울고 있는 점돌이에게 다가가 "너 이담부턴 안 그럴 터냐?"라고 말했더니 점돌이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곤 실수로 넘어진 척하며 동백꽃 속으로 파묻혔다, 그리고 엄마가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 하다 말구 어딜 갔어!"하는 소리에 내려갔다

나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열일곱 살 꽃다운 나이의 정점순이다.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집 아래로 이사 온 바보 같은 매력이 있는 은진수를 보며 마음이 콩닥콩닥 거린다.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괜히 시비조로 말했다가 거절을 당하였다.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지만 어째서인지 눈에서 물이 나온다 진수는 그런 나의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지만 이내 하던 것을 마저 한다.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내 말에 상처를 받았던 것일까? 어쨌든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난다. (닭싸움의 세부 묘사 생략) 그리고 닭싸움을 시켜 진수가 거절한 것을 복수했지만 진수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의 닭을 때려 죽였다. 난 또 싸움을 시켜서 진수에게 미움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해보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생각해 보면 나의 닭도 죽었기 때문에 그것만 용서하면 미움 받을 일이 없다. 이를 통해 나는 진수가 고마워하는 마음도 얻을 수 있었다.

"안녕 나는 꽃다운 나이 18살 점순이야.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애가 있어.
걔 마음을 아직 잘 모르겠어.
오늘은 걔한테 말을 걸어봐야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부끄럽네.
일단은 난 감자 좀 구워야겠다."
그러면서 점순이는 감자를 구워 자신이 좋아하는 남주에게 다가갔다.
"야 너 지금 뭐해?"

"..."

점순이는 갑자기 민망해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점순이는 이상하게도 그 매력에 끌렸다.

나는 시골에 사는 17살 김점순이다. 난 이 촌구석에서 있기 너무 가까운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나도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다. 그는 바로 우리 집 땅의 소작농의 아들 남주이다. 난 이 놈과 친하지는 않고 절대로 만나서도 안 되는 사이이다. 하지만 약간 무덤덤하게 챙겨주면 이 남주도 눈치 채고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감자를 가져다준다. 근데 이놈이 내가 감자를 줬는데 고마워 하기는 커녕 먹지도 않는다. 내가 뭘 잘못한게 있나? 아님 애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젠 모르겠다. 관심이나 끌어야 하니 닭으로 관심을 끌어야 겠다. 아이고 닭싸움을 붙였는데 이놈은 나를 이기려고 난리다. 그리고 남주는 이렇게도 눈치가 없나? 내가 이렇게 관심을 주는데도. 그리고 나는 오늘 마지막 방법을 쓸 예정이다. 내 마음대로 몰래 남주의 닭을 데려와서 싸움을 붙이는 거다. 그리고 더 약을 올리기 위해 살짝 미친 사람 같기는 해도 피리도 같이 불 예정이다. 와 이 방법이 통했다. 그리고 나는 엄마를 피해서 동백꽃 속으로 낮은 포복을 하는데. 어이쿠 남주가 넘어졌다. 끝

나는 강원도 춘천에서 사는 17살 김점순이다. 나는 동네에 좋아하는 또래 '김우로'라는 남자애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엄마가 일하러 나간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부엌에서 몰래 맛있는 봄 감자를 3개 굽고 있다. 다 구워서 우로에게 건네주었지만 우로는 안 먹겠다며 화를 내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김우로가 그렇게 화를 냈는지 잘 모르겠어서 나도 속상해서 화를 내었다.

나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17살 김점순이다. 우리 집에 거의 얹혀사는 듯이 살고 있는 17살 나와 동갑인 김덕재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나는 그 남자아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 남자아이는 일도 열심히 하고 멋져서 호감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오늘 나는 덕재에게 몰래 구운 감자를 주려고 한다. 구운 감자를 받고 좋아하면 좋겠는데, 뭐라 말하면 좋을지 몰라 통명스럽게 말했다. 근데 뭘 저리 대답을 하는지. 왜 나를 거절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짜증이 난다. 왜 구운 감자를? 그것도 내가 준 감자를 안 받지? 난 덕재가 너무 미웠다. 하지만 아직 좋아하기는 하고. 덕재에게서 관심도 받고 미운 것을 풀 겸 덕재의 닭을 괴롭히기로 난 마음을 먹었다.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가 된다.

나는 강원도에 춘천에 사는 열일곱 살 김점순이야 지금 엄마가 안방에서 자고 계셔서 나는 감자를 굽고 있어. 왜 굽고 있냐고? 요즘 밑에 집에 있는 김덕화에게 감자를 갖다 주려고 굽고 있어 갖다 주면 개도 좋아하겠지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덕화에게 감자를 주려는데 그냥 주면 섭섭해서 "느 집엔 이런 거 없지? 라면서 덕화에게 줬더니 빠진 듯 받지 않았다. 덕화에게 주려고 감자를 세 개나 구워왔는데...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감자까지 주려는 성의를 거절하다니 그래서 다음에 개한테 너 배넛병신이지? 니 아버지 고자라며 등의 욕을 퍼부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개네 닭을 막 괴롭히고 우리 닭과 싸움을 붙여 덕화를 더 성가시게 하였다 오늘도 우리 닭이 덕화네 닭을 쪼고 있었는데 덕화가 올

라와 내 닭을 때려 죽였다 나에게 그동안 쌓여온 게 많았는지 그랬나 보다 덕화는 내 닭을 때려 죽이고 아주 놀란 듯하였다. 그래서 개한테 가서 아무 말하지 말라고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 이제 좀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것일까?

나는 김점순이다. 지금 저기 남자 주인공을 꼬실 생각이다. 일단 구운 감자를 들고 간 뒤, 도도하고 차갑고 무심한 척 하며 감자를 건네준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몹시 화가 난 상태다.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다! 며칠 후 남자주인공이 땀감을 구하러 갔으니 내 플랜A를 시작해야지. 닭들아 싸워라! 어! 저기 남자주인공이 오고 있다. 나이스 타이밍이다. 남자주인공은 나에게 와서 뭐라 뭐라 하며 간다. 다음날 또 해야지. 다음날 또 남자주인공이 땀감을 구하러 간 사이 또 닭싸움을 시킨다. 남자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소리를 지르며 화낸다. 나는 그 화에 못 참고 욕을 한다. 이 배넷병신아! 그리고 다음날 오늘 남자주인공의 닭을 불러보니 오늘은 좀 기가 살고 힘이 세진 거 같아 보였다. 내 닭이 초반에 기가 죽어 맞고만 있었지만 남자주인공의 닭이 못먹어 힘이 없어지자 우리 닭이 다시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자주인공이 와서 말렸다. 다음날 나는 산봉우리 위에서 피리를 불며 닭싸움을 시켜놓고 남자주인공이 오기를 기다렸다. 남자주인공은 화를 참지 못해 우리 닭을 죽여 버렸다. 화를 참지 못해 닭을 죽인 남자주인공은 불안함에 울고 있었다. 그 때 어머니가 오시면서 둘이 굴러 동백꽃 속으로 숨게 되었는데 내가 남자주인공에게 '너 내가 안 말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고 했다.

나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열입곱 살 점순이다. 나는 덕수에게 예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끄러워 말 한마디 못해봤다. 근데 때마침 덕수가 혼자 울타리를 열고 있길래 감자 중에 제일 굵고 맛있어 보이는 감자 3개를 골라 구워 식지 않도록 행주치마 속 안에 넣고 얼른 덕수에게 뛰어갔다. 나는 덕수에게 자연스레 말을 걸다가 감자를 꺼내 그냥 주기는 부끄러워서 "느 집엔 이거 없지?" 라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감자를 줬다. 그런데 덕수는 "나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라고 하는게 아니냐. 나는 너무 당황해서 창피해서 얼굴도 빨개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나는 잠시 동안 얼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얼른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저녁에 나는 너무 분해 덕수가 잘 보이는 곳에서 덕수네집 암탉의 불기짱 계를 주먹으로 쥐어박았다. 그러자 덕수가 와서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라고 해서 나는 "예이, 더럽다! 더럽다!"하며 닭을 내팽겨치고 "이 바보 녀석아! 너 배넷병신이지? 느 아버지라 고자라지?"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래도 분이 안풀려서 다음날 우리집 수탉 중 제일 센 수탉과 덕수집 수탉을 싸움을 시켰다. 그리고 또 다음날 나는 덕수가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 바위에 앉아서 또 닭싸움을 시켰다. 덕수가 내려오며 자기네 집 수탉이 피를 흘리고 있는걸 보고 화가 났는지 우리집 수탉을 죽였다. 그리고서는 자기도 놀랐는지 뒤로 자빠지더라. 그 틈을 타서 나는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터냐?"라고하자 덕수가 "그래"라고 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닭이 죽은 것은 안 이른다고 했다. 그 순간 밑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서 덕수를 밀어 둘이 동백꽃 속으로 파묻혔다. 나는 엄마의 역정소리에 겁이나 밑으로 살금살금 내려갔다.

나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점순이다. 엄마가 일하러 나간 것을 알고 감자 세 개를 구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기뻐하겠지? 하고서 감자를 다 구운 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면서 줄지 생각하면서 감자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건네준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달리 그 사람은 짜증나하면서 감자를 먹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구운 감자를 받지 않다니 속상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현하려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닭과 우리집에 있는 닭을 싸움을 붙였다 그 사람은 자신의 닭이 다치자 짜증 나하였고 나는 그의 반응이 짜증 나하자 내 기분을 느껴보라고 더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더 짜증 나하였고 나는 동백꽃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닭을 싸움을 붙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닭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하였고 나는 내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했다 그때 누군가 찾으러왔고 나는 동백꽃 사이로 도망갔다.

나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열일곱 점순이다. 오늘은 준식에게 감자를 구워줄 것이다. 준식에게 가보니 준식은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을 걸며 너희 집은 이거 없지? 하고 감자를 주었는데 준식이 감자를 받지 않는 것이다 나는 순간 부끄럽고 화가 나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준식이 닭을 데려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있으니 준식이 와서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 닭을 놓아주었다. 그런데 준식이 화를 엄청 내는 것이다 나는 방금 전 있었던 일과 지금 일이 화가 나서 준식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인 이 바보 녀석아, 너 배넛병신이지, 애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라고 화를 냈다 말하고 보니 좀 심하게 말한 거 같아서 일단은 준식이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 다시 가보니 우리 닭에게 준식이 고추장을 먹이고 있었다 그러고는 우리 닭과 준식이 닭이 한바탕 싸웠다 당연히 우리 닭이 이겼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다. 준식은 민망했는지 자신의 닭을 안고 급히 돌아갔다 나는 준식이 없는 틈을 타서 준식의 닭을 죽였다 근데 그걸 준식이 본 것이다. 준식은 화를 냈고 나는 그럼 어때? 라고 하며 준식을 밀었다 그러더니 준식이 일어나면서 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준식에게 다음부터 안 그럴 거냐고 물었고 준식은 그래하고 대답을 했다. 나는 갑자기 중심을 잃으며 넘어졌고 준식과 동백꽃 속으로 파묻혔다

나는 열일곱 살인 점순이다. 나는 엄마께서 일하러 나간 것을 확인 후 부엌으로 가 감자 세 개 정도를 굽고 있다. 내가 감자를 굽고 있는 이유는 내가 요즘 좋아하는 남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에게 주려고 감자를 굽고 있다. 이 감자를 주면 그 남자 아이가 좋아하겠지? 얼마 안 있고 감자가 다 구워져 감자를 갖고 나는 그 남자 아이를 찾았다. 나는 그 남자 아이에게 다가가서 감자를 주었다. 하지만 그 남자 아이는 내가 준 감자를 먹지 않았고 나는 좀 화가 나고 슬프기도 했다.

내가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해도 받아주면 어디 덧나나…….

나는 동백꽃 소설 속 여주야. 내가 감자를 얼마나 열심히 구웠는지 알아! 그 상황을 설명해 줄게.

나는 부엌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감자 세 개를 구웠어. 근데 막상 굽다보니 뭐라고 말하면서 줘야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그냥 갔어. 막상 가니까 나쁜 쪽으로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도 내가 구워왔는데 꼭 안 먹는다고 해야 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나는 나도 잘못했고 남자아이라도 잘못했다 생각해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내 이름은 김점순 오늘은 엄마도 집에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순돌이한테 감자 구워줘

야지 순돌이한테 어떻게 주면 좋을까..? 아마 엄청 고마워하겠지! 이제 다 구웠으니까 줘야겠다. 마침 울타리 가까이에 있네. 너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물었더니 그냥 나뭇가지로 밀어버린다 아니 순돌이가 왜 감자를 안먹지..? 내가 구운 건데.. 나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순돌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논밭으로 냅다 뛰어갔다 순돌이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순돌이가 내 마음을 알아 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나는 요즘 짝사랑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남자애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 같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애에게 관심을 받기위해 그 남자애의 닭을
우리 집 닭하고 싸우게 만들어 관심을 끌기로 했다.
남자애는 나에게 화를 냈지만 난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걸었다.

나는야 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어떤 남자아이를 좋아하고 있다.

나는 강원도 시골마을에 사는 열일곱의 점순이다. 나는 지금 감자를 굽고 있는데, 이유는 나랑 동갑인 남자애에게 갖다 주려고 감자를 굽고 있다.' 애 이거 먹을래?'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가가 감자를 주웠는데 감자를 안 먹는다고! 난 화가 너무나 결심했다 닭을 괴롭히자고 말이다. 어느 날 날을 잡고 닭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걸어왔다.' 너 지금 뭐하나? 왜 우리 암탉을 괴롭히는데? '난 그 말을 무시하고 남자애가 보는 앞에서 마저 닭을 괴롭혔다 왜겠어 내 호의를 거절했으니 그렇지 왜 이렇게 둔한지.... 그때 울타리를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나 다를까 닭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꽤썸한 것, 자기 잘못도 모르고,, 속상한마음에 욕을 막 퍼부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 다시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 방법을 찾았다. 한참 생각하니 닭싸움을 붙이자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그 다음날도 계속 닭싸움을 붙였다. 어느 날인가 우리 닭이 졌지만 ,나중엔 우리 닭이 계속 이겨 별생각 없었다. 그런데 내가 동백꽃 속에서 피리를 불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남자애가 와서 우리 닭을 때려죽였다. 왜 이닌 모르겠지만, 남자애가 울길래 인심 써 다음엔 안 그럴 거냐 물었다. 안 그러겠다고 하길래 용서해 주었고,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동백꽃 냄새가 좋았다. 더 있고 싶었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엄마가 십자수를 놓으라는 생각이 들어 핑계를 대며 곧장 내려갔다.

나는 강원도 충천에 사는 아직 파릇파릇한 열일곱 살 김점순이다. 난 지금 감자 세 개를 엄마, 아빠 몰래 아래 집사는 덕수한테 줄 건데 이걸 정성스럽게 구워서 줄 거다.
다 구워졌으니 이제 덕수한테 줘야지. 어떤 말을 하면서 줘야되는지 모르겠다.
쳐다보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니네 집엔 이런 거 없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덕수가 손으로 내 감자를 밀어냈다.. "안 먹을 거면 말아라. 흥!" 말하며 나는 다시 집에 들어가 감자를 던져놓고 씹씹거렸다.
좋은 생각이 났다. 우리집 싹닭이랑 덕수네 집 허약한 닭이랑 싸움을 붙혀놓으면서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닭들끼리 싸움을 붙혀놓았다.
덕수의 반응이 궁금하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덕수가 저기 보인다.

저 멀리 김남주가 울타리를 엮고 있었다. 듄직한 게 관심이가 등 뒤로 살며시 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이러고 말을 걸었다. 서로 본체만체 하는 사이여서 그런가 그 아이는 "그럼 혼자 일하지 때루 일하디?" 이렇게 내뱉은 소리를 했다. 나는 굴하지 않고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하고 입을 틀어막고는 깔깔 났다. 이런 말 하고 웃는 게 미쳐 보이는 듯이 나를 바라봤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나는 저 애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지? 그냥 주기엔 창피해서 엄마 몰래 구운 감자 세 개를 내놓아 "느 집엔 이거 없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이러며 챙겨주려 했다 나는 챙겨주려 했다. 그래 챙겨주려 했던 말이지. 애는 고개도 안 돌리고 감자를 어깨너머로 밀어버리더니 감자를 안 먹는다는 거 아닌가? 기껏 생각해서 몰래 감자구워 가져왔더니 뭐? 안 먹어? 나는 자존심이 상함과 동시에 이 아이에게 말 걸었을 때보다 더 창피했다. 너무 기분이 상해 그 동안 흘리지도 않았던 눈물이 막 나더라. 나는 속상한 마음에 그대로 눈독으로 달려가 버렸다.

나는 시골에 살고 있는 점순이다. 나는 할머니가 나가서서 정동진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감자를 굵고 있었다. 감자를 구운 뒤 정동진에게 갔다. 가서 난 말하였다 "느그 집에 이런 거 없지?" 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썼지만 동진이는 화가 났나 보다 나의 감자를 뿌리쳤다. 난 기분이 나빠서 동진이 아빠에게 몯쓸 욕을 하였다. "느그 아버지 고자라지?" 라는 말을 하였다 동진이가 왜 마음을 안 받아주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동진이가 나무를 캐러간 뒤에 우리 집 닭이랑 동진이 닭이랑 싸을 붙였다. 왜냐하면 동진이가 마음을 안 받아 줘서이다. 그래서 화 나는 마음에 동진이네 닭이랑 싸을 붙여 놓은 것이다. 싸을 붙인지 오래 동진이가 나무막대기로 우리 집 닭을 때려 죽였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동진이가 마음을 열어준 것을 확실히 알았다. 닭을 죽인 것을 내가 용서해준 대가로 그런 것 같다.

나는 며칠 전부터 철수를 좋아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철수가 좋아할까 싶어서 고민을 하던 순간에 울타리를 고치는 걸 봤어. 나는 부엌에 가서 감자를 정성스럽게 굵고 껍질까지 까서 주머니에 넣어서 갔어. 나는 철수한테 장난쳐 줄려고 "니네 집엔 이런 거 없지?"라고 말하고 줬는데 철수가 안 먹을 듯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먹을 거면 말아라. 흥!"하고 돌아서 화가 났어. 내가 열심히 감자를 구워서 줬을 뿐인데 그런 반응을 보여서... 화를 내다보니 얼굴이 빨강게 됐는데 철수도 그걸 봤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철수를 쏘아보고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난 창피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 나는 씹씹거리며 어떻게 하면 철수를 놀려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나는 그 감자로 인해 철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철수를 증오하는 마음이 피어올랐다. 그러다 문득 철수네 닭을 보고 떠올랐다. "아! 저거다" 하고 나는 얼른 우리 집 닭과 철수네 닭을 데려와 싸움을 붙였다. "이러면 되겠지"